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7.2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52.90원 (-1.10원)

KOSPI

3,089.65 (+17.95, +0.58%)

KOSDAQ

783.67 (+2.17, +0.28%)

국고채 10년 금리

2.802 (-0.021%p)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금리가 오르니 스프레드가 내려가네 [김상만]
실전 퀀트(Quant MP)	가계 금융자산 비중과 PER의 관계 [이경수]
Econ Snapshot	6월 한국 수출입 동향: 반가운 반등 [전규연]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 관세 유예 종료 임박 [김근아]

산업분석

자동차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5년 6월) [송선재]

Monthly

자동차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송선재, 김현수]
휴대폰/부품	유럽 제외한 주요 시장 전년동월대비 증가 [김민경]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에스디에스, SK바이오팜, 넷마블, 코스맥스, 롯데관광개발, 세아베스틸지주, 대덕전자, 에이치브이엠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5년 7월 2일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금리가 오르니 스프레드가 내려가네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주요 국내외 변수측면에서 후반전은 아직 시작 전

6월 신용채권시장 흐름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섹터별/만기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신용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회사채/여전채의 경우 5~6bp 이상(3Y기준) 하락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물론 단기물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오히려 확대되는 등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은행채 발행 증가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변수라 판단된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을 보면 다소 특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시장금리(국채금리)는 한 달 동안 대부분 만기에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신용스프레드는 (1년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작년 이후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시장금리의 신용스프레드에 대한 영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즉, 올해 상반기 내내 신용스프레드의 안정세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세 및 역캐리 현상에 따른 금리메리트 추구가 자리잡고 있었다(라고 대부분 생각했다). 시장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이나마 금리가 높은 신용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같은 수요세가 신용스프레드 안정세를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 같은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앞선 인과관계가 작용한다면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신용스프레드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CrediVille*의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 시장금리가 너무 낮아짐에 따라 신용채권의 절대금리 부담이 커졌던 것이 이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시장금리가 실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신용스프레드 또한 실제보다 더더욱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이 추가로 진행될지 않을지의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상황 변화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상반기 내내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하락"에 몰입되어 있던 채권시장에 1) 신정부 출범과 2) 부동산 문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채권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좌표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참가자들은 작년 말 이후 반 년 동안 이어진 일종의 공백 상태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의 해소 및 국외적으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 제거가 그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신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내각 구성이나 정책 방향성 잡기 등 아직 구체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 국외적으로도 관세 유예 시한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한국은 본격적인 통상 내지 관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아직 국내외적으로 확인해야할 변수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2025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실전 퀀트(Quant MP)

가계 금융자산 비중과 PER의 관계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 연초대비 +36% 기록, 전 증권사 1위 기록 중

하나증권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는 연초대비 +36.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Fnguide 기준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20.5%를 기록하여 특히 성과가 높았다. 하나증권 퀀트 포트폴리오는 당시 적중 확률이 높은 컨셉츄얼한 스타일 선택과 그에 맞는 종목군을 피킹하여 베팅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에는 호실적 예상 종목과 내러티브 종목군, 기관 빈집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적중했다. 특히 효성중공업, SK하이닉스,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등이 퀀트 포트폴리오에 기여 최상위 종목군이었다.

7월 스타일 결정은 다음 두 가지 가정이 핵심(개인 주도 지수 상승, 계절성)

1) 개인 수급 주도의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주주환원 기대감, 대북화해 정책, 원화 강세 등도 유리한 환경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뭉쳐진 개인 수급 유입 모멘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고객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상승시 개인 순매수 금액(코스피 개인 상승 기여도) 임팩트가 높아지고 있다(지수가 상승했을 때만 개인 순매수를 측정하는 방식). 과거 코로나 직후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인보다는 개인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수 상승에 개인 수급 기여도 증가는 지수 레벨업의 핵심 에너지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한국은 주요 국가대비 가계 자산 구성 중 금융자산(주식 및 예금 등)의 비중이 가장 낮고(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중 역시 낮음) 이는 국가별 PER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최근 국내 개인들의 매수의 핵심 의미는 국내 주식의 디스카운트 해소일 것이다. 결국 지수 상승에 유리한 스타일인 신용융자 상위, 대형주, 주가 낙폭과대 스타일에 선제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2) 7월은 계절성 측면에서 기관 빈집, 거래대금 상위, 고배당 스타일이 성과가 높았다. 하반기 특성상 기관 과보유 종목군보다는 기관 수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이 성과가 좋았고, 내러티브를 반영하여 거래대금 상위 스타일, 펀드 연간 수익 확정 및 'Book Closing'을 준비하는 펀드가 늘어나면서 고배당 종목군의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최근 개인들이 배당 관련 ETF에 순매수를 급격히 늘리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기대).

7월 퀀트 MP 편입 주요 종목은?

이번 지수 상승은 원화 강세를 통한 외인이든, ETF 매수를 통한 개인이든 패시브 설정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총상위 및 기관 빈집, 주가가 덜 오른 종목군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화오션 등이 지수 상승할 때마다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거래대금 및 신용융자 상위 등이 부각되는 LG씨엔에스, 에이비엘바이오도 퀀트 유망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고배당주인 롯데지주, 현대제철, 효성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Econ Snapshot

Economy | 2025.07.01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김형균 hyungkyunkim@hanafn.com

6월 한국 수출입 동향: 반가운 반등

6월 한국 수출입 동향 Review

- 한국 6월 수출은 전년비 4.3% 증가해 당사 예상치(4.2%)에 부합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비 6.8%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 기록. 단, 이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했음도 감안할 필요. 6월 수입은 전년비 3.3%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91억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 기록
-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 11.6%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 반등을 견인. 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HBM, DDR5)의 견조한 수요와 주요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에 기인. 컴퓨터 수출도 글로벌 AI서버 시장에서 고용량 SSD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비 15.2% 증가.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위탁생산(CMO) 수요 지속으로 전년비 36.5% 증가
- 자동차 수출이 전년비 2.3%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 현지 생산 증가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대EU 자동차 수출(전년비 41.7%)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며 반등을 주도. 다만 저유가로 수출단가가 하락해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은 부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불확실성 증대로 전년비 -36.1% 감소
- 지역별로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전년비 -0.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 관세 부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해 일반기계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음. 대중 수출은 전년비 -2.7%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부진한 점이 주요. 대EU 수출은 전기차 수출 증가와 더불어 기수주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전년비 14.7% 증가. 대일본 수출은 일반기계, 반도체 품목 중심으로 전년비 3.0% 증가해 반등

양호한 반도체 수출이 관세 발 악영향을 일부 상쇄해주며 수출 회복을 지지

- 금번 수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출경기 하방 압력은 상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7/9)를 앞두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백악관은 금주 안으로 상당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
- 베센트 재무장관은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국가도 기한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유예됐던 상호관세(한국은 25%)가 재부과될 가능성을 시사. 현재 한-미 무역협상은 통상을 담당할 실무진이 최근 임명되는 등의 이유로 전개 속도가 지지부진한 양상.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실효관세율이 높아진다면 대외부문 부진은 불가피할 소지
-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대중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했고, 최근 아세안(전년비 25.0%) 및 인도向(전년비 11.3%)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어 해당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
- 빅테크 기업들의 AI Capex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버용 SSD 수요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 컴퓨터 수출 호조도 한국 수출경기 하단을 지지해줄 공산
-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반도체 수출 단가가 반등한다면 관세 발 대외부문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상쇄될 듯. 한국 수출 경기는 반도체 수출 회복 속도에 연동되며 상저하고 흐름 기대

2025년 7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 관세 유예 종료 임박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폭스콘 인도 투자 확대, 중국+1 전략의 수혜국 불변

지난주 아이폰 최대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도 내 전자기기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애플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목적으로 인도 생산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중 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견되자 재편 속도를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5년 1~5월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아이폰 금액은 44억 달러로,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수출액인 37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투자 소식은 인도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 중인 전자기기 생산 및 수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소식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제조사들이 중국+1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인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미국 관세 유예 종료 임박, 협상 결과가 공급망 이전 지속 여부의 핵심 변수일 것

한편, 인도로의 공급망 이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곧 발표될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38%가 대체 생산기지로 신흥 아시아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베트남은 이미 생산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한 국가로, 신흥 아시아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두 국가 모두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베트남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베트남이 미국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국과 중국이 30% 관세율에 한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목적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데 있는 만큼, 관세를 10%까지 낮추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25%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도는 중국 우회 수출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어 10%의 관세 협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에 따라 제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상 결과가 우호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경제 및 증시에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5년 6월)

현대차/기아 +2%/+0% | 2025.07.0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현대차: 6월 도매판매 +2% (YoY). 내수/해외 +4%/+1%

도매판매

- 6월 글로벌 도매판매 35.9만대(+2% (YoY))
- 내수 6.2만대(+4% (YoY))/해외 29.7만대(+1% (YoY)). 해외판매 비중 82.7%(-0.4%p)
- 내수에서 승용 1.8만대(+9%), RV 2.3만대(+20%), 소상 0.8만대(-14%), 대형 0.3만대(-1%), 제네시스 1.0만대(-14%, 비중 16.8%)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56%/-26%/+131/-2%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64%/+14%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 +6%/+9%/+330%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4%/+21%/-4% (YoY)
- 내수 친환경차: 2.2만대(+44%). 친환경차 비중 35.1%(+9.8%p). EV/HEV 각각 0.5만대/1.7만대(+34%/+50%)
- 내수 전기차: 신형 아이오닉9/아이오닉6 767대/674대 기여, 아이오닉5 -19% (YoY)
- 6월 누적 글로벌/내수/해외 판매는 각각 206.6만대/35.5만대/171.2만대 (+0%/+3%/-0% (YoY))

기아: 6월 도매판매 +0% (YoY). 내수/해외 +5%/-1%

도매판매

- 6월 글로벌 도매판매 27.0만대(+0% (YoY))
- 내수 4.6만대(+5% (YoY))/ 해외 22.3만대(-1% (YoY)). 해외판매 비중 82.8%(-0.7%p)
- 내수에서 승용 1.2만대(+14%), RV 3.1만대(+4%), 상용 0.3만대(-19%)
- 내수 승용: K3(-100%) 단산 영향. 모닝/레이 +22%/+19%. K5/K8 -2%/+60%
- 내수 RV: 니로 -28%.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6%/+9%/+8%/-17%. 신형 타스만 1,302대 기여
- 내수 친환경차: 2.1만대(+25%). 친환경차 비중 46.6%(+7.6%p). EV/HEV 각각 0.5만대/1.6만대(+55%/+18%)
- 내수 전기차: 신형 EV4 1,073대 기여, EV3 1,884대, EV6/EV9 -49%/+0%
- 6월 누적 글로벌/내수/해외 판매는 각각 158.7만대/27.7만대/131.0만대 (+2%/+0%/+2% (YoY))

주요 시사점: 판매 모멘텀은 약하지만, 주가는 선반영 후 반등 중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6월 글로벌 합산 도매판매는 62.9만대(+1% (YoY))
-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4%/0% (YoY) 증가하면서 내수가 전체 판매를 견인. 낮은 기저와 신차 효과
- 6월 누적 도매판매를 보면, 현대차/기아가 각각 206.6만대(+0%)/158.7만대(+2%)
- 이는 과거 3년 평균인 200.7만대/151.6만대 대비 3%/5%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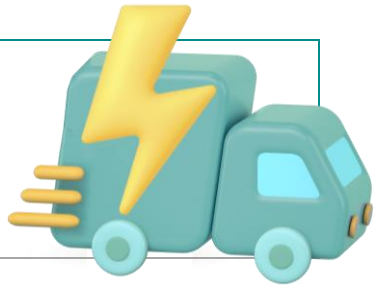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5년 도매판매 목표는 1%/4% 증가한 417.4만대/321.6만대
- 6월 누적으로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49.5%/49.4%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48.6%/49.5% 대비 상회/유사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48.2%/49.1% 대비해서 상회
- 2025년 목표 자체가 낮지만, 6월까지의 판매는 사업계획 범위 안에서 진행 중

주가

- 신차 효과(아이오닉9, EV4, 타스만, PV5, EV5 등)가 있지만, 낮은 시장 성장률과 각국 정책 변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판매 및 주가 모멘텀은 약한 편
- 특히, 판매/이익 비중이 큰 미국 시장의 관세 정책이 단기 부정적으로 작용 중. 2분기부터 비용으로 반영되고, 하반기 시장수요 위축 요인
- 다만, 주가는 선행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우려가 완화되는 시그널(관세율 하락 혹은 현대차/기아의 대응 방안 결정)이 발생할 때마다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
- 주가 박스권 내 회복된 후 박스권 돌파의 새로운 모멘텀, 특히 Valuation 상향의 근거들(미래기술 진전,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5년 5월 EV +24%, HEV +15%, 배터리 +32% | 2025.7.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 RA 강민아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 RA 홍지원

전기차: 5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24% (YoY).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 53.8%, 유럽 28.4%, 미국 8.9%, 한국 8.0%

글로벌
- 5월 163.2만대(+24% (YoY), BEV/PHEV 106.8만대/56.4만대(+26%/+22%). 5월 누적 724.1만대(+32% (YoY))

미국
- 5월 13.3만대(-7% (YoY), 비중 8.9%). BEV/PHEV 10.2만대/3.1만대(-14%/+24%), FCEV 19대. 5월 누적 63.2만대(+5%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39만대/1.20만대

중국
- 5월 104.0만대(+25% (YoY), 비중 53.8%). BEV/PHEV 64.5만대/39.5만대(+33%/+14%). 5월 누적 445.5만대(+38%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BYD의 Seagull/Geely의 Star Wish로 각각 4.30만대/3.87만대

유럽
- 5월 31.6만대(+33% (YoY), 비중 28.4%). BEV/PHEV 20.3만대/11.3만대(+24%/+50%). 5월 누적 153.4만대(+28%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 Y/폭스바겐의 ID.3로 각각 1.1만대/0.7만대

한국
- 5월 1.2만대(+58% (YoY), 비중 8.0%). BEV/PHEV 1.2만대/0만대, FCEV 118대. 5월 누적 4.9만대(+62% (YoY))

하이브리드차: 5월 글로벌 HEV 증가율은 +15% (YoY). 지역별 HEV 침투율은 유럽 29.4%, 일본 48.3%, 미국 13.7%, 한국 26.3%

글로벌
- 5월 86.5만대(+15% (YoY)), 유럽 32.7만대(+12%), 일본 13.9만대(-2%), 미국 20.1만대(+44%), 한국 3.9만대(+31%)
- 5월 누적 449.7만대(+19% (YoY)), 유럽 175.2만대(+18%), 일본 87.9만대(+2%), 미국 91.2만대(+56%), 한국 18.4만대(+20%)

현대차/기아: 5월 친환경차/전기차 증가율은 +11%/-2% (YoY), 전기차 비중은 7.8%,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9%

친환경차
- 5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3.33만대(+11% (YoY), 비중 21.6%). 현대차/기아 각각 7.47만대(+15%)/5.86만대(+6%),
- 이 중 HEV 소매판매는 8.54만대(+19%, 비중 13.9%), 현대차/기아 4.98만대(+18%)/3.56만대(+19%)
- 5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63.06만대(+13% (YoY), 비중 21.4%). 이 중 HEV 소매판매는 40.0만대(+17%, 비중 13.6%)

전기차
- 5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4.79만대(-2% (YoY), 비중 7.8%). BEV/PHEV 3.91만대/0.87만대(+1%/-9% (YoY), 비중 6.4%/1.4%). 현대차/기아 각각 2.49만대(+9%)/2.30만대(-10%). 5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23.04만대(+7%, 비중 7.8%)
- 5월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현대차/기아 합산 2.9%(-0.4%p (MoM), -0.7%p (YoY)). 현대차/기아 각각 1.5%/1.4%(-0.1%p/-0.3%p (MoM), -0.2%p/-0.5%p (YoY))
-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출하 동향: (현대차) 아이오닉5 출하 3,683대(내수/수출 1,400대/2,278대), 소매판매 2,993대(내수/유럽/미국 1,400대/1,453대/110대). 아이오닉6 출하 1,919대, 소매판매 3,181대. 아이오닉9 출하 2,609대. 제네시스 GV60 출하 310대(내수/수출 120대/190대). 넥쏘 출하 3대. (기아) EV6 출하 2,134대(내수/수출 957대/1,177대), 소매판매 3,580대(내수/유럽/미국 957대/1,340대/801대). EV5 출하 1,316대, 소매 1,181대. EV9 출하 1,870대(내수/수출 178대/1,692대), 소매판매 1,523대(내수/유럽/미국 178대/829대/37대). EV3 출하 6,490대. EV4 출하 1,373대

2차전지: 글로벌 5월 배터리 출하 +32%(YoY), CATL 1위

출하량
-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32%(YoY) 증가한 92.0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34.6GWh(+33%), BYD 16.3GWh(+44%), LGES 8.9GWh(+12%), CALB 4.8GWh(+23%), SK on 3.4GWh(-2%), 삼성SDI 2.6GWh(-3%), Panasonic 2.4GWh(-25%)
- 5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51.0%로 전월 대비 +0.7%p 상승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5월 -11%/+1%/-0%/+0%/+4%/+3%/-7%(MoM), 6월 -5%/-2%/-1%/-1%/+3%/+3%/-5%(MoM)

시사점 및 의견: 미국은 HEV, 중국과 유럽은 EV 위주로 성장

자동차
-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정책 효과에 따라 지역별 상이한 흐름. 미국은 수입차 관세 부과 및 전기차 지원 축소 등으로 5월/누적 전기차 판매가 -7%/+5% (YoY) 변동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 부각된 HEV는 44%/56% (YoY) 성장. 중국은 전기차 위주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5월/누적 전기차 판매가 25%/38% (YoY) 증가했고, 유럽은 낮은 기저와 CO2 배출가스 규제의 영향으로 5월/누적 전기차 판매가 33%/28% (YoY) 증가. 현대차/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는 5월/누적 -2%/+7% (YoY) 변동하며 시장 하회 지속되며 모멘텀 부재

유럽 제외한 주요 시장 전년동월대비 증가

Monthly 휴대폰/부품 [25년 5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 2025.07.02

투자의견	Overweight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글로벌 스마트폰 5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 전월대비 2% 증가한 9,856만대 기록

- 지역별로 미국, 중국, 인도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6%, 7% 증가, 유럽은 2% 감소
- 미국, 중국, 인도는 공격적인 프로모션 정책이 소비를 자극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은 경제악화로 인해 소비가 둔화
- 5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월대비 3% 증가했는데 중국 618 쇼핑 축제 준비 및 미국 내 OEM사들이 90일 관세 유예 기간 내 채널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5년 이후 월별 출하량과 판매량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6%, 전월대비 21% 증가한 2,282만대 기록

- 6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OEM사들은 대대적인 가격 인하 마케팅을 단행했고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년대비 강한 성장세를 기록. 다만 프로모션과 보조금 효과는 618 시즌 이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Apple은 15 및 16 시리즈에 대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61% 증가. Pro 모델에 대해서는 약 350달러 수준의 가격 인하를 적용해 정부 보조금 적용 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따라 하반기 출시 예정인 17 시리즈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프로모션 영향으로 Apple 점유율은 전월대비 4.5%p 상승한 18.4%, Huawei는 전월대비 3%p 하락한 16.7%를 기록하며 각각 1, 2위를 기록

미국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13% 감소한 855만대 기록

- 미국 판매량은 Apple, Samsung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며 통신사 프로모션 및 관세 부과 전 선제적인 소비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Apple 판매량은 iPhone 16e 신모델 효과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삼성전자 판매량은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인도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7%, 전월대비 4% 증가한 1,181만대 기록

- 주요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여름 세일 행사로 수요가 증가. 또한 25년 5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이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 Vivo가 21%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인도 소비자 수요가 저가($100~199)에서 중저가($200~299) 모델로 이동하면서 수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삼성전자는 17%로 점유율 2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동월대비로는 판매량이 1% 감소. 인도시장 내 중저가 및 고가 스마트폰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된 영향
- Apple은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했는데 하이엔드($600 이상) 시장에서 78% 이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

유럽 판매량은 봄 프로모션 종료 및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2%, 전월대비 5% 감소한 1,291만대 기록

- 삼성전자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 감소.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 호조에 따른 역기저 영향과 중저가 세그먼트 내 점유율이 축소된 영향으로 추정. 5월말 S25 Edge가 출시되어 6월 판매량은 전월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출고가로 인해 신모델 출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Apple 판매량은 전작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7% 증가. iPhone 16e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판매량은 제한적인 상황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6/30	284,000	285,500	0.53%	•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KB금융 (105560.KS)	6/30	110,600	110,800	0.18%	• 2분기 추정 순익은 약 1.65조원, 매매평가익 확대시에는 1.7조원 상회 가능할 전망 • CET 1 비율 추가 상승으로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최소 7,000억 가능
삼성에스디에스 (018260.KS)	6/30	173,300	168,400	-2.83%	• 1Q25 Review 매출액 3.5조원(YoY +7.6%), 영업이익 2,266억원(YoY +0.3%) 기록 • 최대 6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 사업 수주 성공
SK바이오팜 (326030.KS)	6/30	91,300	92,400	1.20%	• 미국 내 CMO 시설에 대한 FDA 승인 허가 획득하여 관세 부과 리스크 낮아 • 4월부터 세노바메이트 처방량 급격히 증가하며 실적 회복세 전망
넷마블 (251270.KS)	6/30	59,100	62,000	4.91%	• 1Q25 Review 매출액 6,239억원(YoY +6.6%), 영업이익 497억원(YoY +1,243.2%) 기록 • 하반기 [뱀피르], [몬길: STAR DIVE], [프로젝트 SOL],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출시 예정
코스맥스 (192820.KS)	6/30	270,500	277,000	2.40%	• 영업 거점 확대 + 시장 침투 강화 + 사업 영역 확대로 동남아시아에서의 성장 기대 • K뷰티 글로벌화 나타나며 대응력 높은 대형 ODM사 선호 형성
롯데관광개발 (032350.KS)	6/30	16,940	17,320	2.24%	• 1Q25 Review 매출액 1,219억원(YoY +15.0%), 영업이익 130억원(YoY +48.0%) 기록 •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을 앞두고 밸류에이션도 상승하는 구간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6/30	31,650	30,750	-2.84%	• 1Q25 Review 매출액 9,017억원(YoY -5.4%), 영업이익 181억원(YoY -15.0%) 기록 • 관세 90일 유예된 상황으로 적극적인 판매 전략 감안시 2분기 특수강 판매량 증가 전망
대덕전자 (353200.KS)	6/30	17,470	17,450	-0.11%	• 2Q25 Preview 매출액 2,386억원(YoY +0.1%), 영업이익 52억원(YoY -52.5%) 전망 • 1분기 부진했던 DDR5 및 DDR4 용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회복 기대
에이치브이엠 (295310.KQ)	6/30	29,900	29,300	-2.01%	• 고청정진공용해 기술, 합금화 공정기술, 금속 특성 제어기술 등 핵심 기술 국산화 • 나로호, 누리호 발사체 향 특수강 및 Cu계 첨단금속 납품 레퍼런스 보유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42%	-0.68%p	+28.41%	+2.0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7/1	110,900	110,800	-0.09%	• 2분기 추정 순익은 약 1.65조원, 매매평가익 확대시에는 1.7조원 상회 가능할 전망 • CET 1 비율 추가 상승으로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최소 7,000억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7/1	848,000	839,000	-1.06%	• 1Q25 Review 매출액 5.5조원(YoY +278.4%), 영업이익 5,608억원(YoY +3,057.0%) 기록 • 하반기 K9 자주포 및 천무의 인도 지속 고려, 高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NAVER (035420.KS)	7/1	262,500	262,000	-0.19%	• 소버린AI 관련 정책 점차 가시화되면서 자체 LLM 모델, 공공 클라우드 역량 부각 전망 • 25~26년 AI 에이전트의 출시로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 방어 가능
KT&G (033780.KS)	7/1	127,700	127,200	-0.39%	• 25년 자사주 약 1.3조원 매입 소각과 약 2.4조원 규모 배당 이행 전망 • 국내 NGP 매출액 YoY 증가 흐름 및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망
두산 (000150.KS)	7/1	656,000	605,000	-7.77%	• 견조한 AI 가속기향 CCL 수요로 25년 가파른 외형 및 이익 성장 기대 • 엔비디아의 차세대칩(루빈)용 제품 공동개발 진행 중
한국금융지주 (071050.KS)	7/1	139,600	140,200	0.43%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에이피알 (278470.KS)	7/1	154,200	154,200	0.00%	• 1Q25 Review 매출액 2,660억원(YoY +79.0%), 영업이익 546억원(YoY +97.0%) 기록 • 1Q25 미국 내 단일 브랜드 기준 K뷰티 매출 1위 달성. 마케팅 고도화로 해외 외형 성장
삼성E&A (028050.KS)	7/1	22,100	22,900	3.62%	• 2Q25 Preview 매출액 2.2조원(YoY -16.5%), 영업이익 1,675억원(YoY -36.2%) 전망 • 하반기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6공장 등의 일부 계열사 물량 수주 기대
HD현대마린엔진 (071970.KS)	7/1	50,300	50,000	-0.60%	• 1Q25 Review 매출액 830억원(YoY +35.0%), 영업이익 102억원(YoY +64.0%) 기록 • 하반기 엔진뿐 아니라 부품 납품도 늘어날 예정으로 실적 기대 요인 다수 보유
에스엠 (041510.KQ)	7/1	141,000	143,900	2.06%	• 1Q25 Review 매출액 2,314억원(YoY +5.0%), 영업이익 326억원(YoY +110.0%) 기록 • 2대 주주인 텐센트 뮤직과 향후 중국향 사업 기회에서 다양한 시너지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4.61%	-0.98%p	+38.40%	+12.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3.4	13,000	15,680	20.62%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2.3	13,065	12,750	-2.41%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498400.KS)	2025.1.6	9,895	11,100	12.18%	• KOSPI200 지수를 매수하는 동시에 KOSPI200 위클리 콜옵션을 일부만 매도하여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타겟 커버드콜 형태의 ETF • 지수 저점 확인 과정에서 타겟 배당 수익(연 17% 목표)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익 안정화 추구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4,160	46.13%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팔란티어, 샤오미,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0.25	2.41%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URA (미국 우라늄 주식)	2025.06.16	38.07	38.81	1.94%	• 글로벌 우라늄 생산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치에 따라 편입하는 ETF •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소모 증가, 탄소중립 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수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 SMR(소형모듈 원자로)을 중심으로 원전 테마의 주가 모멘텀 기대 유효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09.12	7.44%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PAVE (미국 인프라주)	2024.07.19	38.42	43.58	13.43%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리쇼어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 내용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9	**6.30**	**7.1**	**7.2**	**7.3**	**7.4**	**7.5**
	▪ 한국 5월 광공업생산 (0.2%, 4월 4.9%) ▪ 중국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7P, 5월 49.5P) ▪ 중국 6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50.5P, 5월 50.3P)	▪ 한국 6월 수출/입 (E --/--, 5월 -1.3%/-5.3%) ▪ 일본 6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F (E --, 5월 49.4P) ▪ 유로존 6월 HCOB 제조업 PMI F (E --, 5월 49.4P) ▪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5월 1.9%/2.3%) ▪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 5월 48.5P)	▪ 한국 6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5월 1.9%/2.3%) ▪ 유로존 5월 실업률 (E --, 4월 6.2%) ▪ 미국 6월 ADP 취업자수 변동 (E --, 5월 37K)	▪ 일본 6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F (E --, 5월 51.0P) ▪ 유로존 6월 HCOB 서비스업 PMI F (E --, 5월 49.7P) ▪ 미국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E --, 5월 4.2%) ▪ 미국 6월 실업률 (E --, 5월 4.2%) ▪ 미국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E --, 5월 0.4%) ▪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5월 49.9P)		
		▪ ECB 신트라 포럼(~7/2)	▪ 미국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7.6	**7.7**	**7.8**	**7.9**	**7.10**	**7.11**	**7.12**
	▪ 일본 5월 선행지수/동행지수 P (E --/--, 4월 104.2P/116.0P) ▪ 유로존 7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E --, 6월 0.2P) ▪ 유로존 5월 소매판매 (E --, 4월 0.1%)	▪ 독일 5월 수출/입 (E --/--, 4월 -1.7%/4.0%) ▪ 미국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E --, 5월 98.8P)	▪ 중국 6월 소비자물가 (E --, 5월 -0.1%) ▪ 중국 6월 생산자물가 (E --, 5월 -3.3%) ▪ 일본 6월 공작기계수주 P (E --, 5월 3.4%)	▪ 영국 6월 RICS 주택가격 수지 (E --, 5월 -8.0%) ▪ 일본 6월 생산자물가 (E --, 5월 3.2%) ▪ 한국 7월 기준금리 (E 2.50%, 6월 2.50%)	▪ 영국 5월 광공업생산 (E --, 4월 -0.6%) ▪ 영국 5월 건설생산 (E --, 4월 0.9%)	
	▪	▪		▪ 미국 6월 FOMC 의사록 ▪ 한국은행 5월 금통위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